

날짜: 5785 년, 여섯째 달 11 일 (9 월 4 일, 2025)

토라 문: 끼 때체 (네가 나가는 때에)

주제: 품안의 자식

신명기 22 장 6-7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나 새의 등지를 보거든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데려가지 말고 어미 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네가 취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수명이 길어지리라." 여호와와 빛, 계명을 이행할 때 재물의 부유함을 상금으로 보상해 주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 이를 행할 때 명예로써 보상받을 계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구절에서 이 계명을 행할 때 받는 상은 무엇일까요 정검합니다: 현인들은 "수명을 연장하리라"는 구절을 다음과 같은 해석으로 제시합니다. 수명을 연장하리라 하는 말씀은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여호와 전능자께서 "어린 새를 네 장수로" 데려가 너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아이츠 요셉은 이것이 תַּיִל(ve-'et;웨엘; 바야흐로 처음과 마지막)라는 일반적으로 번역되지 않는 숨은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단어 "웨엘" (=And Alef-Tav)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뜻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며, 듣는자의 여호와 믿음 순종에 따라서 신비의 비밀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창조의 성언의 22 글자들 중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써, 온 세상의 총체적 시종의 권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페르 하히눅 (545 절)에서는 미드라쉬에서 "그리고 새끼를 네 자신을 위해 데려가라"라는 구절 전체를 단지 추가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 자식들을 낳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기록합니다.

카즘 소페르는 이 보상이 어미 새를 내쫓으라는 계명의 이유에 대한 람밤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람밤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종의 멸종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미 새를 살려두라고 명령하신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적인 생물을 포획하거나 도살할 수 있지만, 어느 한 특정 종의 파괴나 그에 유사히 멸종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카즘 소페르는 생물의 어느 한 종이더라도, 그들 생태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대한 적절한 상금으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도 자신의 자녀들을 낳도록 축복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세페르 하히눅 에서는 이 여호와와 계명에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전능자의 섭리를 상기시켜 준다고 설명합니다. 창조된 생물의 한 종이더라도 빠지 않고 지속적인 존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각각 모든 생태계 안에 담으신 여호와 엘로힘의 창조의 섭리를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 창조하신 생물의 모든 종과 염색체를, 사람이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각 종에게 부여하신 생명의 영속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장들이 내면에 뿌리한 신성한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의 생명인 여호와와 말씀과 밝혀주신 계명을 통하여, 지각을 갖춘 우리는 여호와 창조주의 완벽하신 보살피심과 섬세하심을 주목합니다.

동시에 단 한 틈새도 벌어지지 않으신 완전하신 창조 질서를 말씀으로 세우시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약속하여 주신 무병 장수와 복의 길로 인도하심의 산 증인들이 됩니다. 창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종류 (ין : 민; Kind)”도 생명체 종류의 포괄적인 범위 안에 있어서는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자가 여호와와의 계명을 지키고, 모세와 선지자들로 가르쳐 주신 완전한 진리에 심령의 뿌리를 내리며 따라 간다면, 그 역시도 창조주 여호와 전능자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신성하신 절대적 법치의 복의 섭리하여 거할 영적·물리적 자격을 이미 부여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적으로 더더욱이 강건하며 장수를 누리며 살고,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할 환희를 누릴 자격이 준비된 것입니다. 현재도 복을 누리며 다가오는 시공간에서도 영원할 생명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획일적”입니다. 모든 것의 지속적인 존재를 오로지 하느님께 돌리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그의 지속적인 존재를 보장해 주실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네다림 64b)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역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옷을 벗고 현 물리적인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미드라쉬의 설명을 통하여 현인들이 드러내시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그 결과가 새로운 보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계명을 믿음과 병행하여 온 심장, 영혼, 육신의 힘, 지각을 동원하여 준행할때에, 전능자께서 창조의 거룩한 통로로 쓰신 말씀, 그의 토라가 보장하는 상금이 이 생애에 있어서 무병 장수의 연장선이 된다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어미 새를 쫓아내라는 계명의 또 다른 이류가 내재하는 데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연민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사람들보다 더 연민의 영이 실제적으로 깊습니다. 산헤드린 36b 에서는 설명하기를 [영적으로나 육신 적으로 낳은 ] 자녀가 없는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기록합니다.

왜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고통과 노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긍휼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 할찌라도이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어미 새에게 연민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기적인 본성에 자비를 심어준다면, 영육적으로 자녀를 주실때에, 여호와와의 속성이신 연민(רחמים : rachamim;라하미) 이라는 품성을 더욱 성숙시킬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명기 22:6-7 귀절에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새는 사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미 새는 왜 새끼 위에 맴도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잡아가려 할 때 본능적으로 도망쳐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이유는, 그 어미새의 새끼에 대한 사랑이 자기 보존 본능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이러한 모성애의 표현을 어미를 사로잡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끼에 대한 부모의 사랑에 경의를 표하는 행위인 어미 새를 쫓아내는 여호와의 계명은, 그 순종의 행실에 대한 보상 중 하나로 자신의 자식에게 그러한 사랑을 쏟을 기회를 가져 옵니다.

샬롬

“나는 알렐과 타브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 22:13)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 13:11-16)

“예수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 10:29-30)